

#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김희숙<sup>1</sup> · 유광자<sup>2</sup>

<sup>1</sup>경북대학교 간호대학<sup>1</sup>, <sup>2</sup>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과<sup>2</sup>

##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Male Baby Boom Generation Men

Kim, Hee Sook<sup>1</sup> · Yu, Kwang Za<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Provincial Geochang Collage, Geochang,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baby boom generation men.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279 baby boom generation men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2. The instruments used included a subjective quality of lifescala, a self-esteem scale, a spiritual well-being scale, a communication with spouse scale, a social support scale, and a job satisfaction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ll variabl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quality of life. As a result,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life of quality were self-esteem ( $\beta=.21, p<.000$ ), social support ( $\beta=.20, p<.002$ ), job satisfaction ( $\beta=.19, p<.001$ ), communication with spouse ( $\beta=.15, p<.004$ ), spiritual well-being ( $\beta=.16, p<.004$ ), and family income ( $\beta=.15, p<.023$ ). These factors accounted for 61% of the total variances.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a ne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community health nurses in consideration of these variables to improve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r baby boom generation men.

**Key Words:** Baby boom, Quality of life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란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쟁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다시 만나고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결과 출산율이 높아진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로 약 69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인구 12.1%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이다 (Korean Statistics, 2010).

베이비붐 세대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산업의 각 부문에 취업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소득수준을 향상하고,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질병위험문제, 경제침체 및 구조조정에 따른 정신 심리적 불안문제 등이 야기된 시기에 살고 있다(Seon et al., 2010).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은 학력수준이 높고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며,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다. 또한, 문화적으로 은퇴

**주요어:** 삶의 질, 자존감, 사회적 지지, 영적 안녕감, 직업만족도

**Corresponding author:** Kim, Hee Soo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2-ga, Joun-gu, Daegu 700-420, Korea  
Tel: +82-53-420-4927, Fax: +82-53-422-4926, E-mail: hskim8879@knu.ac.kr

**투고일:** 2013년 6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4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0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후 금전 축소와 증대된 문화욕구 간 괴리로 심한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득 수준의 감소로 미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특성이 있다(Jeong et al., 2010).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경우 퇴직 전에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통합하는 생의 질정기이지만 직장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Kim, Jeon, Jung, Choi, & Kim, 2005), 퇴직 후에는 수입의 감소와 가정 내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으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력계층인 50~59세의 사망원인 2위가 자살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Korean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2).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경우 자녀의 교육과 부모 봉양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제2의 사춘기와 함께 외로움, 고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그들의 주관적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력계층인 50대 남성들은 발달단계로 볼 때 노년기를 앞두고 있으며 조기 퇴직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로 사회와 가정에서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질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상생활을 지루하지 보내지 않고 생기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며, 인간이 개별적으로 개인의 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만족감을 판단하여 자신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으로(Lee & Lee, 2002) 행복감, 복지, 좋은 삶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현재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와 삶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질병, 경제상태(Chang, 2012; Ha, 2012)가 있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접근만으로 삶의 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개인 내적 요인인 자존감, 우울(Lin, Yen, & Fetzer, 2008)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리고 심리 및 정신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매일의 삶을 영위하며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Bowling & Windsor, 2001).

그동안 중년남성들의 삶의 질에 대해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존감(Hein & Lehman, 1995), 사회적 지지(Lee, 2002; Okkonen & Vanhanen, 2006), 영적안녕감(Mueller, Plevak, & Rummans, 2001; Popkess-Vawter,

Yoder, & Gajewski, 2005), 직업만족도(Ha, 2012; Kim & Hong, 2009), 부부 관계유형(Lee & Kim, 2004) 등의 연구들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중년남성 또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삶의 질과 상관관계 연구에만 그치고 있어 영향요인을 다양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드물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은 중년에 속하지만 40대 남성과 달리 신체적인 노화에 따른 불안, 자녀독립과 상실감,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에서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베이비붐의 대량퇴직과 노령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남성들의 자존감, 영적안녕감, 부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및 직업 만족도 요인들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자존감, 영적안녕감, 부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및 직업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된 영향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파악한다.

## 3. 용어의의

### 1)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은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을 의미하며(Campbell, 1976),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1976) 의해 개발된 척도로 Lee (1997)가 번안한 도구로서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삶에 대한 느낌)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2) 자존감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동기, 가치, 가치관 인지 등이 개인의 심리현상 속에서 수용되고 조직화 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Rosenberg, 1965)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Jeon (1974)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3) 영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은 자기수용, 절대자 또는 타인과의 사랑, 용서, 신뢰관계,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 등과 관련된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로(Howden, 1992), Howden (1992)이 개발하고 Oh, Chun와 So (2001)가 번역한 한국어판 영적 안녕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4) 부부 의사소통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가 그들의 욕구나 감정을 서로 나누고 역할이나 규칙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로(Olson & Olson, 2000), Kim (2010)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 중 하위영역인 부부 의사소통 부분을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인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받은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으로 Park (1985)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에 대한 네 영역을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6)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경험하는 감정적인 반영 혹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얻은 욕구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Miller, 1967), Miller (1967)의 The Attitude Toward Any Occupation Scale 중 Kim (1999)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주관적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9월 1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 4개의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50에서 58세 사이의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로서 글을 읽고 이해 가능하며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하고 서면 동의 한 사람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표본 크기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15,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을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해 독립변수 14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가 최소 194명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회수 과정에서 20% 이상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약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연구 표본 수는 응답누락 21부를 제외한 279부(93%)이었다.

## 3. 연구도구

### 1) 주관적 삶의 질

Campbell (1976)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Lee (1997)가 번역하였으며 최근의 경험에 대한 삶에 느낌 8개 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삶에 대한 느낌을 두 개의 형용사를 짝지어 제시하며 ‘지루한-재미없는, 비참한-즐거운, 비관적인-희망적인, 실망스러운-보람 있는, 텅 빈-가득찬, 비관적인-희망적인, 실망스러운-보람 있는, 운이 없는-행운이 따르는’ 등의 8개의 문항으로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 사이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한 7점 Likert 척도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퍼센트 개념을 사용하여 가중치 1.1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며 11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삶에 대한 느낌 8~56점, 삶에 대한 만족도 1.1~1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삶의 질 점수는 삶에 대한 느낌에 대한 평균점수와 삶의 만족도를 합친 점수로 최고 점수가 19.1점이며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Ha (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 2) 자존감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Jeon (1974)이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 코

당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 3) 영적 안녕감

Howden (1992)이 개발하고 Oh 등(2001)이 번역한 한국어판 영성 측정도구로 28문항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 4문항, 내적 자원 9문항, 상호관계성 9문항, 초월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 4) 부부 의사소통

Olson과 Olson (2000)에 의해 개발된 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ENRICH) Inventory를 Kim (2010)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 중 하위영역인 부부 의사소통 부분을 측정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부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일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5점까지이며 Likert 5점 척도로 부정문항을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함을 의미한다. Kim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 5) 사회적 지지

Park (1985)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6) 직업만족도

Miller (1967)의 The Attitude Toward Any Occupation Scale 중 우리나라 중년남성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Kim (1999)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신의 신분대 대한 보수, 사회인지도, 적성 등에 관한 호의적 및 비호의적 만족, 불만족의 정도가 표현된 2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무직이나 퇴직자의 경우 과거 직업에 대한 본인의 의

견을 체크 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 검증 및 자료수집을 위해 B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진행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승인번호: 2-014).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하여

4개 지역(대구, 창원, 수원, 부산)의 대학생 학부모, 그 외 친목단체 모임, 이웃, 교회, 스포츠 센터, 운동 동우회 등에서 연구자가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서면 동의를 받고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9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였다. 대상자로부터 회수된 질문지는 총 300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무응답을 제외한 총 27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정도와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술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주관적 삶의 질과 자존감, 사회적 지지, 부부 의사소통, 직업만족도, 영적 안녕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Hierarchical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를 보면 나이에서 50~54세 사이가 60.9%로 55~57세 39.1%보다 많았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95.0%가 기혼 상태였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이 54.5%로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다. 교육 정도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 39.1%, 대학원 졸 10.0%, 중졸 이하 8.2% 순이었다. 결혼기

간은 63.4%가 21년에서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직업은 자영업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이 7.9%로 가장 적었다. 가족 전체 수입은 201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47.7% 가장 많았다. 자녀 수는 2명이 67.0%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50.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대졸 이상의 경우 중졸 이하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종교 유무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결혼상태가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낮았으며( $p = .015$ ), 가계소득이 400백만 원 이상인 경우 200만 원 이하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았다.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

는 경우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았다( $p < .001$ )(Table 1).

## 2. 주관적 삶의 질, 자존감, 영적 안녕감, 부부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및 직업만족도 정도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한 결과 주관적 삶의 질은 삶의 느낌과 삶의 만족도를 합친 평균점수는 19.1점 만점에 13.3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존감은 39점 만점에 평균  $29.6 \pm 4.41$ 점이었고, 영적 안녕감은 140점 만점에 평균  $96.5 \pm 16.08$ 점이었으며, 부부 의사소통은 45점 만점에 평균  $30.2 \pm 3.91$ 점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121점 만점에 평균  $85.1 \pm 13.07$ 점이었으며, 직업만족도의 96점 만점에 평균  $68.0 \pm 12.65$ 점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life of the Participants

(N=2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t or F (p)	Scheffé
Age (year)	50~54	170 (60.9)	13.4±2.84	3,2~19,1	0,55 (.052)	
	54~59	107 (39.1)	13.1±3.10			
Education	≤ Middle school <sup>a</sup>	23 (8.2)	11.3±3.85	3,2~19,1	6,61 ( $< .001$ )	a < c, d
	High school <sup>b</sup>	108 (39.1)	12.9±2.85			
	College <sup>c</sup>	118 (42.7)	13.7±2.64			
	≥ Graduate school <sup>d</sup>	28 (10.0)	14.3±2.94			
Religion	Yes	127 (45.5)	13.9±2.72	3,2~19,1	3,42 (.001)	
	No	150 (54.5)	12.7±3.03			
Marital state	Married	263 (95.0)	13.4±2.90	3,2~19,1	2,44 (.015)	
	Bereavement or diverse	8 (5.0)	10.4±3.30			
Duration of marriage (year)	0-10	11 (3.9)	13.4±2.44	4,2~19,1	2,27 (.081)	
	11-20	59 (21.1)	12.4±3.50			
	21-30	177 (63.4)	13.5±2.84			
	≥ 31	30 (11.5)	13.9±2.45			
Job	Retirement	22 (7.9)	13.0±3.10	4,2~19,1	1,53 (.183)	
	Specialized job	33 (11.8)	14.0±2.14			
	Office worker	83 (29.7)	13.5±2.75			
	Service	15 (5.4)	12.4±3.16			
	Production	58 (20.8)	12.6±3.49			
	Independent enterprise	67 (24.4)	13.6±2.84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 200 <sup>a</sup>	26 (9.3)	11.4±3.80	3,2~19,1	9,25 ( $< .001$ )	a < c, d
	201~400 <sup>b</sup>	131 (47.7)	12.9±3.00			
	401~600 <sup>c</sup>	81 (29.1)	13.7±2.40			
	≥ 601 <sup>d</sup>	38 (13.6)	14.9±2.01			
Number of children	1	43 (15.4)	13.4±3.01	3,2~19,1	0,11 (.894)	
	2	186 (67.0)	13.3±3.07			
	≥ 3	48 (17.6)	13.5±2.39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sup>a</sup>	107 (11.1)	14.4±2.35	2,1~19,1	13,25 ( $< .001$ )	a > c
	Moderate <sup>b</sup>	139 (50.5)	12.7±3.03			
	Poor <sup>c</sup>	31 (38.4)	12.3±3.31			

### 3.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자존감, 사회적 지지, 직업만족도, 영성, 부부 대화, 부모 자녀 대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은 자존감( $r=.63, p<.001$ ), 영적 안녕( $r=.61, p<.001$ ), 부부 의사소통( $r=.50, p<.001$ ), 사회적 지지( $r=.63, p<.001$ ) 및 직업만족도( $r=.64,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존감과 영적 안녕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4.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중 종교, 결혼상태, 교육,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와 개인적 요인으로 자존감과 영적 안녕, 가족적 요인으로 부부 의사소통,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직업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Table 2.** Mean of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N=279)

Variables	M±SD	Min	Max
Dependent			
Quality of life	13.3±2.94	3.2	19.1
Independent			
Self-esteem	29.6±4.41	16	39
Spiritual well-being	96.5±16.08	56	140
Communication with spouse	30.2±3.91	19	45
Social support	85.1±13.07	39	121
Job satisfaction	68.0±12.65	27	96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79)

Variables	Quality of life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Communication with spouse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r (p)	r (p)	r (p)
Quality of life	1					
Self-esteem	.63 (<.001)	1				
Spiritual well-being	.61 (<.001)	.58 (<.001)	1			
Communication with spouse	.50 (<.001)	.26 (<.001)	.09 (<.119)	1		
Social support	.63 (<.001)	.54 (<.001)	.62 (<.001)	.52 (<.001)	1	
Job satisfaction	.64 (<.001)	.60 (<.001)	.54 (<.001)	.13 (.031)	.53 (<.001)	1

일련의 회귀분석을 통해 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가 0.225~0.910로 1.0 이하이며, 분산팽창요인(VIF)이 0.295~4.447로 값이 10 이하로서,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고, Durbin-Watson 상관관계는 1.686을 나타내 잔차의 상호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잔차의 정규 분포 성 및 등분산성은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상에서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모든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델 1은 주관적 삶의 질과 상관성을 나타낸 변수 중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종교(무=0), 결혼상태(이혼 및 별거 상태=0), 교육 정도(중졸 이하=0), 가계소득(월수입 200백만원 이하=0), 주관적 건강상태(건강하지 못하다=0)를 기준변수로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바꾸어 처리하였다. Model 1단계는 일반적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보다 대졸일 때( $\beta=.28, p<.011$ ), 종교가 있을수록( $\beta=.16, p<.004$ ),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beta=.28, p<.002$ ) 가계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보다 200만 원에서 400만원일 때( $\beta=.26, p<.009$ ), 600만원 이상일 때( $\beta=.33, p<.001$ ) 주관적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0%였다. Model 2단계에서 가계소득( $\beta=.15, p<.023$ ), 자존감( $\beta=.21, p<.001$ ), 사회적 지지( $\beta=.20, p<.002$ ), 직업만족도( $\beta=.19, p<.001$ ), 영적 안녕( $\beta=.16, p<.001$ ) 및 부부 의사소통( $\beta=.15, p<.004$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설명력은 Model 1에 비해 41% 향상되어 총 61%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고령세대의 중심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79)

Variables	Quality of life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Communication with spouse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r (p)	r (p)	r (p)
Quality of life	1					
Self-esteem	.63 (< .001)	1				
Spiritual well-being	.61 (< .001)	.58 (< .001)	1			
Communication with spouse	.50 (< .001)	.26 (< .001)	.09 (< .119)	1		
Social support	.63 (< .001)	.54 (< .001)	.62 (< .001)	.52 (< .001)	1	
Job satisfaction	.64 (< .001)	.60 (< .001)	.54 (< .001)	.13 (.031)	.53 (< .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N=279)

Variables	Model 1			Model 2			Collinearity statistics (Model 2)	
	β	t	p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5.22			-5.30			
Education (≥ College)	.28	2.55	.011	.14	1.70	.092	0.225	4.447
Religion (Yes)	.16	2.87	.042	.02	0.66	.513	0.876	1.141
Health status (Good)	.28	3.06	.002	.06	0.82	.415	0.317	3.157
Family income (401~600)	.26	2.62	.009	.09	1.24	.216	0.295	0.295
Family income (≥ 601)	.33	3.86	< .001	.15	2.28	.023	0.355	0.335
Self-esteem				.21	3.30	< .001	0.834	1.199
Social support				.20	3.21	.002	0.796	1.257
Job satisfaction				.19	3.33	.001	0.775	1.290
Communication with spouse				.15	2.95	.004	0.910	1.099
Spiritual well-being				.16	2.88	.004	0.824	1.214
R <sup>2</sup>		.23			.64			
Adjusted R <sup>2</sup>		.20			.61			
R <sup>2</sup> change					.41			
F (p)		6.47 (< .001)			24.87 (< .001)			

축으로서 역할을 주도할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간호중재개발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교육 정도, 종교, 결혼상태, 가계소득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대학원 졸업 대졸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졸 이하의 경우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가계소득 수준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자 중 고학력자가 삶의 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고학력자가 경제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어 다양한 삶의 활동 기회로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Chang, 2012; Ha, 2012). 또한 Chang (2012)의 중년에 건강 관련 삶

의 질 연구에서는 종교가 삶의 질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삶의 질이 높았다. Mueller 등(2001)의 종교 참여와 영성이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이는 종교를 가진 경우 영적 안녕을 증진 시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중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한 Chang (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상태가 삶의 질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유무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여성과 달리 남성들에 있어 배우자는 노후를 함께 해야 할 동반자로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삶의 느낌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합쳤을 때 주관적 삶의 질 정도는 19.1점 만점에 13.3점으로 40에서 59세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Ha (2012)의 13.7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자존감은 39점 만점에 평균 29.6점으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Ha (2012)의 연구에서 30.5점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신체적 자신감 저하와 함께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위축되어 자신감이 저하되는(Kim et al, 2005)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이었으나 Ha (2012)의 연구에서는 인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초기 중년 남성대상자의 비중이 본 연구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는 121점 만점에 평균 85.1점으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Ha (2012)의 88.7점과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영적 안녕감은 140점 만점에 96.5점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감과 영적 욕구를 조사한 Song과 Kim (2011)의 120점 만점에 영적 안녕감 54.4점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영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ong과 Kim (2011)의 대상자는 평균연령이 67.5세로 높고, 학력이 초등 졸업 이하의 비율이 32.6%로 차지하며, 거주 지역이 농촌으로 본 연구대상자들과는 다른 개별적 특성에서의 차이점이라 생각된다. 부부의사소통은 45점 만점에 평균 30.2점으로 Ha (2012)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30.4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녀 양육기가 짧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독립 후 부부 둘만이 생활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증가됨으로 부부의사소통은 가정생활만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직업만족도는 96점 만점에 평균 68.0점으로 Ha (2012)의 연구의 70.0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러한 차이는 인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초기 중년 남성들 보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경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조기 퇴직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업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은 자존감, 영적 안녕감, 부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직업만족도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존감은 주관적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자신을 어느 정도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태도와 정서적인 느낌으로서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Hein & Lehman, 1995). Lee (2002)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은 주관적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주관적 삶의 질에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영적 안녕감 상태는 자신의 생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인 조화와 평화, 감사와 만족, 타인과의 지지적인 관계(Howden, 1992) 등으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초기 중년 남성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연구한 Ha (2012)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결과로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경우 삶의 목적과 자신의 존재가치를 분명히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영적 안녕감이 주관적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맞는 영적 안녕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간호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남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행위를 유도하는(Okkonen & Vanhanen, 2006) 것으로 베이비붐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떠나가게 되는 시기로 정서적인 지지가 약해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정서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과 문제에 대처 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적, 정보적 지지가 필요하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은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Kim과 Hong (2009)의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직업만족도는 수입만족 및 여가활동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 욕구만족, 감정적인 반영을 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은 2010년을 기점

으로 본격적인 은퇴의 길로 들어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97년 말 외환위기의 일차적 타격을 받은 집단으로 생애 주 직장 취득의 실패로 불안정한 근로 인생을 살아온 세대로서 이전세대보다 열악한 근로 생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총 소득이나 혹은 저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이비붐 세대로 올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Shin, 2013).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 부부 의사소통은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Lee와 Kim (2004)의 노년기 삶의 질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부부관계는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때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이러한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화가 많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 때 주관적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베이비붐 세대 부부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부부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일반적 특성인 종교,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및 가계소득이 20%의 설명력을 보였고, 자존감, 영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부부 의사소통, 직업만족도를 추가하여 함께 투여한 결과 61%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들 변인들 중 자존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만족도, 사회적 지지, 부부 의사소통, 영적 안녕감 및 가계소득 순이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존감, 영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부부 의사소통,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표집 대상의 편중으로 대표성이 결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이 있다고 사료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을 대상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 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삶의 질은 일반적인 특성 중 교육 정도, 종교, 결혼상태 및 가계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은 자존감, 영적 안녕감, 부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및 직업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존감, 직업만족도, 사회적 지지, 부부 의사소통, 영적 안녕감 및 가족수입 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61%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존감, 직업만족도, 사회적 지지, 부부 의사소통 및 영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REFERENCES

- Bowling, A., & Windsor, J. (2001). Towards the good life: A population survey of dimensions of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 55-82.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124.
- Chang, H. K. (2012).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middle age. *Korean Journal Adult Nursing*, 24(4), 339-347.
- Ha, T. H. (2012). *Development of the structural model of middle-aged 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595-607.
- Howden, J. W. (199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Denton, TX, USA.
- Jeon, B. C.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29.
- Jeong, H. S., Park, J. K., Kang, S. W., Moon, O. S., Son, M. J., Lee, E. M., et al. (2010). *The effects of the baby boomers retire and countermeasures*. Retrieved October, 10, 2010, from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1&pubkey=db20101014001](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1&pubkey=db20101014001)
- Kim, S. B. (2010). *A study on bibliotherapy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for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yeongtaek University, Pyeong-

- taek.
- Kim, Y. H. (1999). *On study of subjective well-being and adjustment in middle-aged salaried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Y. J., & Hong, H. (2009).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mid-old age (over 45 years old and over)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1*, 93-118.
- Kim, Y. S., Jeon, H. W., Jung, Y., Choi, J. E., & Kim, B. H. (2005). A study on subjectivity of change of life in middle aged me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7*(2), 259-267.
- Korean Statistic. (2010). *The baby boom generation through social survey features*. Retrieved April 9, 2010,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70430](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70430)
- Korean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2). *2012 National survey on suicide*. Retrieved December, 12, 2012, from <http://www.spckorea.or.kr/main/>
- Lee, H. J., & Kim, Y. J. (2004) The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love and sexual attitude) in later life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4), 197-214.
- Lee, M. S. (1997).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korean workers and associ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 H., & Lee, J. S. (2002). A concept analysis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588-595.
- Lee, Y. W. (2002). A study of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4), 539-549.
- Lin, P. C., Yen, M., & Fetzer, S. J. (2008). Quality of life in elders living alone in taiwa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12), 1610-1617.
- Miller, G. A. (1967). Professionals in bureaucracy: Alienation among industrial scientists and engine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5), 755-768.
- Mueller, P. S., Plevak, D. J., & Rummins, T. A. (2001) Religious involvement, spirituality, and medicin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Mayo Clinic Proceedings, 76*(12), 1225-1235.
- Oh, P. J., Chun, H. S., & So, W. S. (2001). Spiritual assessment scale: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1*(2), 168-179.
- Okkonen, E., & Vanhanen, H. (2006). Family support, living alone, and subjective health of a patient in connection with a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Heart & Lung: The Journal of Acute and Critical Care, 35*(4), 234-244.
- Olson, D. H., & Olson, A. K. (2000). *Empowering couples: Building on your strengths*. Minneapolis, Minnesota: Life Innovations, Inc.
- Park, J. W. (1985). *One research for a social support scal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Popkess-Vawter, S., Yoder, E., & Gajewski, B. (2005). The role of spirituality in holistic weight management. *Clinical Nursing Research, 14*(2), 158-17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niversity Press.
- Seon, W. D., Kim, D. J., Song, Y. G., Kim, N. Y., Yi, Y. G., & Yu, H. Y. (2010). *Current situations of health status and future needs of long-term care utilization of baby-boomers and policy issue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hin, D. G. (2013). Employ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over the life cyc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2), 5-32.
- Song, M. S., & Kim, N. C. (2011). Spiritual well-being, spiritual needs and depression among community-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Nursing, 13*(1), 29-36.